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번기 영농 일손 돕기 구슬땀

김종준 기자 | 승인 2026.05.07 16:0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7일 대야면 소재 박영철씨 농가를 찾아 농번기 영농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공사 농산어촌행복충천활동의 일환으로 영농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군산지사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망고하우스에서 박영철씨의 지도하에 영농활동을 펼치며, 농업 현장의 고충 및 공사에게 바라는 역할을 소통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서기수 군산지사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지역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사는 매년 영농철 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준 기자

